

금호 워크아웃 충격

금호그룹 운명 석유화학·아시아나 경영에 달렸다

그룹 지주사 오너 경영권 유지  
경기 회복세 타고 재기 노릴듯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기 여부가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의 손에 결정되게 됐다. 금호석화는 그룹의 유일한 지주회사인데다 채권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그룹 오너들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따라서 박삼구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금호석화를 기반으로 채권단과 자율협약이란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 금호석화 지키려 했다=금호그룹은 채권단과 막판까지 금호석화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 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채권단은 그룹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 두 회사의 워크아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측은 금호석화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출자제한 등을 통해 경영권이 채권단 손에 넘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계열사 경영권도 잃게 되는 만큼 끝까지 버텼다. 결국 그룹 오너의

금호석화 지분(48.5%)을 채권단에 담보로 넘기는 대신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자율협약은 채권단과 맺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기업구조조정법상 강제력을 갖는 워크아웃보다 강제가 덜어져 기업에겐 운신의 폭이 있다. 더구나 금호석화는 그룹의 유일한 지주회사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금호폴리캠 등 주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때문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후 대우건설에 몰린 금호산업을 포기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해 최근 금호산업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석화에 넘겼다. 또 박삼구 명예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 등이 금호석화 지분을 놓고 매일 경쟁을 벌인 것도 금호석화를 기반으로 재기를 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재기 발판 마련할까=금호는 금호석화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일단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룹 구조조정이 미흡할

금호석유화학 소유 지분구조

구분	법인	지분율
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21.07%
	아시아나항공	26.75%
	대우건설	4.49%
	금호타이어	47.31%
	금호폴리캠	50.00%
	금호미쓰이화학	50.00%
	금호피앤비화학	78.20%
	금호생명보험	27.69%
	상해금호일러스료유한공사	50.00%
	금호페트로출당수유한공사	100.00%

경우 언제든지 채권단이 입김을 넣을 수 있다. 경영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고 있는 만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호석화를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주력 계열사를 통해 그룹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올해 고환율과 신종플루 여파로 최악의 해를 보냈지만 내년에는 주변 여건이 나아지고 대한항공은 현금창출 능력이 뛰어나 그룹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 경영기 수석부행장은 "금호석유와 아시아나는 유동성 어려움이 있지만 영업 등의 상태가 양호하다"며 "채권단 지원을 받아 정상화를 추진하면 조기에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위기의 금호 어디로 30일 워크아웃으로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 가게 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하게 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규모 감원 온다" 술렁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회사 경영권을 넘겨야 할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소식이 전해진 30일 금호 계열사 직원들은 크게 술렁이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은 워크아웃 소식으로 들끓었다. 금호타이어 한 직원은 노조 게시판에 "임

단협에서 706명 구조조정을 막았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706명 + a가 구조조정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만명까지 자르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돈다"고 불안해 했다. 다른 직원은 "이달 급여 지급이 내년으로 미뤄져 어수선한데, 구조조정까지 겹쳐 모두 심란해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분위기도 썰렁했다.

타이어를 가득 실은 트럭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공장 안팎은 차가운 모습이었다. 금호산업 쪽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얼얼하다. 금호고속의 한 버스기사는 "버스기사들이야 특별한 영향이 없겠지만, 고속운행 경험이 전무한 채권단이 경영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금융권 부채 총 15조7천억원

대우건설 풋백옵션 대금 2조6천억도

금융권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에 따른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은행 1조2천억원을 포함해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호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은 대총 10조1천억원, 유가증권 1조2천억원 등 총 15조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융권이 대우건설에서 받아야 하는 풋백옵션 대금 2조6천억원(미확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2조7천억원이 추가된다. 워크아웃이 추진되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은 은행 2조3천원 등 3조원으로, 여기에 대우건설 풋백옵션과 PF 대출 보증을 합하면 8조4천억원이

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역은행이면서도 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경우 단기성 결제자금을 제외하면 대출금이 전무하고 금호타이어도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200억원에 그친다"며 "지역경제 파장을 고려해 물품이나 공사대금 등 단기성 결제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호그룹에 대한 여신이 많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구조조정자금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산업 신용등급

BBB- → CCC

한신평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3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CCC'로, 금호타이어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각각 'BBB'와 'A3'에서 'CCC'와 'C'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각각 'BBB'와 'A3'에서 'BBB-'와 'A3-'로, 대한항공의 무보증사채는 'A'에서 'A-'로, 금호렌터카는 'A'에서 'A-'로 내렸다. 한신평 관계자는 "워크아웃 진행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기존 채권의 손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풋백옵션 대우건설 매각해도 1조5천억 부족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의 단초가 된 대우건설 풋백옵션이 어떻게 처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을 한 주당 1만8천원에 '지분 50% + 1'를 매입하기로 밝힘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매각대금은 약 3조원으로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재무투자자(FI)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풋백옵션 금액 4조5천억

원보다 1조5천억원 모자란다. 당초 금호그룹이 기대했던 주당 2만원으로 같은 지분을 매각했을 경우보다 5천억원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은 진행중인 금호생명 매각, 고속터미널 매각 외에 추가 자산 매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그룹은 금호렌터카를 KT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산은이 대우건설과 함께 금호생명도 매각하기로 하면서 구조조정이 탄력

을 받았지만, 아시아나HDT 매각이 무산되고 베트남 아시아나플라자 매각도 지연부진해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호그룹이 풋백옵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통운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호그룹의 남은 자산 중 대한통운만이 M&A 시장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영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유망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사실/월별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박사실/상가	경매사 010-5070-0005	공방/토지	유형주택 011-002-1005				
소지지	대지/건물	건평/최저가	건평/최저가	비고	소지지	대지/건물	건평/최저가	비고	
영동로	대지:2,200㎡	37억4천	10억	50억	대지	대지:2,200㎡	14억	6억	600㎡
영동로	대지:2,100㎡	21억	14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12억	6억	700㎡
남동	대지:2,100㎡	19억	4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9억	4억	600㎡
영동로	대지:2,200㎡	60억	28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32억	14억	480㎡
영동로	대지:2,200㎡	51억	11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30억	14억	480㎡
영동로	대지:2,200㎡	48억	15억	48억	대우동	대지:2,200㎡	30억	3억	500㎡
영동로	대지:2,200㎡	17억	12억	38억	대우동	대지:2,200㎡	19억	5억	500㎡
영동로	대지:2,200㎡	35억	14억	70억	구동	대지:2,200㎡	9억	4억	600㎡
영동로	대지:2,200㎡	54억	20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48억	28억	280㎡
영동로	대지:2,200㎡	40억	16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30억	14억	480㎡
영동로	대지:2,200㎡	19억	4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48억	28억	280㎡
영동로	대지:2,200㎡	48억	14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38억	18억	480㎡
영동로	대지:2,200㎡	28억	14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28억	14억	480㎡
영동로	대지:2,200㎡	31억	24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11억	4억	280㎡
영동로	대지:2,200㎡	48억	3억	48억	영동로	대지:2,200㎡	38억	18억	480㎡

아파트/월리 박경리 010-6386-6443 주/재개발 순매도시 010-0611-2817 근린주택 박경리 010-4640-2142

빌딩매매 전문. 수완지구 롯데마트 옆 중심상업 지역특급 상권 빌딩매매. 대지: 304평 · 건물: 1454평. 임대: (보) 23억 + 월 5,500만원. 실투자액: 22억. 수완지고 최고 중심상업지역 빌딩매매(금융중심지역 A급 상권). 대지: 263평 · 건물: 950평. 임대: (보) 20억 + 월 2,600만원. 실투자액: 20억. (토지) 수완중심상업지역 도로 35x15x6m(병원부지 및 금융빌딩 최고요지). 최고요지 260평 평당 1,500만원. 총매매가: 39억. (유)코리아랜드컨설팅. 959-1033, 010-7723-1033.